

한국 대표축제의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방안 연구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중심으로-

김학용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융복합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khjhak70@naver.com)
정대율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dyjeong@gnu.ac.kr)

**Strengthening Self-sustaining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the Korea Representative Festival
- Focusing on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Hak-Yong Kim (Ph.D. Course, Dept. of Culture Convergence,
College of Humanities, Gyeongsang University)

Dae-Yul Jeong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ollege of Business, Gyeongsang University)

-원고매수: 16 페이지

[교신저자 연락처]

◎ 김학용

- ◆ 주소 : 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융복합학과 김학용 박사과정
- ◆ 전화번호: 055-772-2626
- ◆ 휴대폰: 010-3447-0776
- ◆ E-mail주소: khjhak70@naver.com

◎ 정대율

- ◆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정대율 교수
- ◆ 전화번호: 055-772-1533
- ◆ 휴대폰: 010-5542-7555
- ◆ E-mail주소: dyjeong@gnu.ac.kr

한국 대표축제의 비즈니스모델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방안 연구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Self-sustaining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the Korea Representative Festival

- Focusing on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 목차 •

I. 서 론

II. 이론적 전개

III. 한국대표축제의 현황

IV.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사례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비즈니스모델 개발된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한국 축제 문화의 전통성과 자립성을 통해 재정자립도 강화방안 연구의 목적이다. 오늘날은 축제가 역사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문화관광축제 고착화를 완화시키고 신규문화 관광축제의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수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몰제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곧 일몰제의 시점이 다가오는 축제들이 축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유료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2015년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 시스템이 크게 변경되면서 축제의 재정자립도와 안전성의 비중이 크게 강화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를 통한 수익창출 사례를 분석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유망축제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연구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Local Cultural Festival, Charge, Floating Lighting, Sunset-Law, Self-sustaining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모든 곳에서 축제가 있다. 축제는 주로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나 기간에 행하는 의식과 부수적인 행위들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는 지역경제의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지역문화 발전, 지역이미지 제고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축제로 모아졌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한 축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6개 광역단체 산하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약 1,200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강중석, 2009). 특히 1,200개에 달하는 지역축제 중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축제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반면 10년 미만의 신생축제가 763개로 65.7%의 점유율을 보였다(류정아 외, 2006). 2010년에 개최된 지역축제는 총 819건이고, 지역축제를 가장 많이 개최한 시·도는 경남 122건 이고, 경기 83건, 강원 91건, 충남 76건, 서울 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역축제 예산을 모두 합하면 총 3,126억 7천 8백만 원이고, 시·도별로 합산한 결과로는 광주가 515억 1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47,965백만 원, 충남 47,538백만 원, 경남 25,264백만 원, 강원 19,708백만 원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지역축제는 10월(231.57건)에 가장 편중되었다. 그 다음으로 4월(97.74), 9월(95.74건), 5월(87.83건), 8월(85.16건)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지역축제의 개최유형은 819건 중 339건(41.4%)이 관광특산축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축제가 256건(31.3%), 전통민속축제 116건, 기타 10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재원 부담주체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축제를 개최하는 비율이 819건 중 89.1%로 10건 중 9건이 해당 된다(김낙순, 2011).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현황’을 보면 763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부터 정부재정 건전화 기조가 시작되면서 축제보조금의 지원금액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해 전체적인 축제의 개최건수도 감소되고 있다. 2010년까지 3년간 정부보조금의 30%가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동안 약 200여 개의 축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3).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문화관광축제 고착화를 완화시키고 신규문화 관광축제의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일몰제에 적용된 축제들의 경우 국비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축제 예산 삭감, 관련프로그램축소, 축제기간 축소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정체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일몰제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곧 일몰제의 시점이 다가오는 축제들이 축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유료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 했다. 2015년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 시스템이 크게 변경되면서 축제의 재정자립도와 안전성의 비중이 크게 강화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한국관광축제의 대표축제 및 일몰제 대상축제를 바탕으로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일몰제 대상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요인과 자생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전개

1. 축제의 개념

1) 축제의 의미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전통적인 축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축하하며 제사를 지냄’과 현대의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축제의 의미로는 축제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 민족의 신앙적 심상이 담겨 있다. 반면 현재의 의미로는 문명화를 거치며 종교성보다는 인간 본위의 이성적 . 합리적 사고에 따라 오락성에 중점적인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의 축제의 의미는 지역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과 전통축제만이 아닌 문화제 . 예술제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축제와 영어에서 사용되는 뜻의 페스티벌(Festival)이 정확하게 부합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가장 근접하는 용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페스티벌은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를 일컫는다. 현

재 축제는 페스티발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상징화된 행사로 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2) 축제의 개념

축제의 기원으로서의 놀이문화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였을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1990년대를 고비로 놀이와 축제는 ‘삶이 질’의 향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지방자치체제와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정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화적 장치는 축제와 놀이 밖에 없는 것이다(이상일, 1996). 어원상으로 축제는 일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떠돌고 즐긴다는 놀이적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기원의 의미가 줄어들고 놀이적 요소가 강화됨에 따라 이벤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물질적 풍요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른 소외감으로 인하여 갈등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체에서 밀려나 획일화된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갈구하기 위하여 축제와 축제에서 유래한 문화 이벤트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조현호 외, 2006).

Eliade(1974)는 축제를 인간의 종교 . 사회 . 문화 등의 제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초월적 내지 초자연적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이시혁(1996)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기간, 장소에서 특정대상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수단이라 하였으며, 이경모(2000)는 주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 . 문화적 .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 또는 의식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 하였다.

축제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축제라는 용어사용의 범위가 넓고, 현대적 의미로는 문화행사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

3) 축제의 특성과 기능

축제를 인간의 내재적 감정표현을 통한 집단적 행위로서 유희본능인 축(祝)과 제(祭)의 제례의식이 합쳐진 산물로 파악한다면 그 축제가 인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현호(2004)는 축제의 기능을 내재적 감정의 표현, 인간의 고귀함과 역사의 영속성 인식, 인간적 삶의 추구, 공동체의

식의 강화, 문화교류의 가교역할 등으로 구분하였고, 김혜림(2007)과 이희성(2015)은 축제가 가지 기능을 일탈성, 유희성, 대동성(집단성), 신성성(제의성), 장소성(지역성)으로 제시하였다. 축제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규명은 연구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축제는 제례의식은 현대의 축제양식과 의례 등으로 축제를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희성과 일탈적 기능은 실질적으로 축제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행동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한다. 그리고 장소적 기능은 활동, 상징성을 포함하며, 사회·문화적 성격과 가치 등을 부여함으로써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축제의 특성과 기능

특성과 기능	내 용
일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일상생활의 규범이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일탈이 제도적으로 보장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일탈성은 특별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보장이 되며, 축제가 끝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 축제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비일상성과 무질서 . 난자의 카오스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억압되었던 감성의 해방감과 근원적인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유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즐거움과 쾌락이 수반되어야 한다. · 축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 놀거리 . 즐길거리 등이 제공 된다. · 축제현장에서는 상황이나 분위에 따라 의도되지 않은 즉흥적인 참여로 개인의 재미와 새로운 사고의 계기를 제공한다.
대동성(집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본래적으로 혼자 즐기는 개별행위가 아니라 어울림을 실현하는 집단적 행위로서 성격을 지닌다. · 집단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축제가 이루어지며, 연령 . 성별 . 경제력 .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대동성을 경험하게 된다.
신성성(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의양식과 의례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축제의 본질에 있어서 한 축을 포함한다.
장소성(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핵심적 속성 중에는 장소성이 존재한다. 장소는 활동 . 상징성 등의 사회 . 문화적 성격을 포함하여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며, 정체성과 애착 등의 체험적 의미가 형성된다. · 지역성은 그 지역의 역사 . 전통문화 . 예술 . 환경 등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를 할 수 있다.

※ 자료: 김혜림(2007), 김희성(2015), 김학용(2016), 재구성.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커지면서 전통문화산업의 부활, 지역 간의 차별화 전략,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이익추구, 지역 이미지 형성 및 홍보, 지역주민의 통합과 조정,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축제가 단순히 유흥적·오락적 기능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민통합과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동반한 축제로 승화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 상품화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Ⅲ.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현황

축제의 소재는 다양하지만 분류해 보면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역사인물축제, 자연생태축제 등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축제사례별 분류

유형	축제명	구분군거
문화예술 축제	안동 탈춤페스티벌	· 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
	영동난계국악제	· 지역의 문화적 파급효과
	춘천 국제마임축제	· 문화효과 · 경제효과 상관관계
	부산 국제영화제	· 문화예술축제 콘셉트
	평창 효석문화제	
전통문화 축제	강진 자문화제	· 축제의 지속성 · 발전성의 관계
	남원 향제	· 전통문화의 계승과 파급효과
	세계도자기엑스포	· 전통문화와 축제행사의 연계방식
	청도 소싸움축제	· 전통축제의 브랜드 파워
	진주 남강유등축제	
지역(전통)특산물 축제	대구 약령시축제	· 특산물 · 문화축제의 상관성
	강진 청자문화제	· 특산물의 경제적 효과
	금산 인삼축제	· 축제의 지속성
지역특성화 축제	고성공룡나라축제	· 지역특성의 효과적 활용
	김제 지평선축제	· 지역특성과 문화 프로그램 개발관계
	화천 산천어축제	· 지역특성의 홍보능력
	보령 머드축제	· 지역특성화의 타당성

자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2.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 3곳, 최우수축제 7곳, 우수축제 10곳, 유망축제 23곳 등 43곳을 ‘문화관광축제’로, 특히 ‘문화관광축제’의 대표축제로 졸업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글로벌축제’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축제의 인지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2016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표 3>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3> 2016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선정 축제

유형	축제명
대표축제(3곳)	김제지평선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최우수축제(7곳)	강진청자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 광주추억의 7080충장축제
우수축제(10곳)	강경젓갈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순창장류축제, 경남진장홍물축제, 제주들풀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유망축제(23곳)	괴산고추축제, 대구약형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목포항구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인천펜타포음악축제,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덕대게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함양삼삼축제
글로벌축제(3곳)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내부자료.

IV.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사례분석

1.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배경과 발전과정

1) 역사적 배경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주시청과 진주문화재단 측에 의하면 연구용

역을 의뢰하였지만 정확한 유래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진주시청 소장자료에 의하면 유등(流燈)에 대해서 구전(口傳)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역사상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기원하고 있다. 즉, 1592년 10월 충무공 김시민(金時敏)장군이 3,8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의 왜군을 크게 무찔러 대성(大承)거두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晋州大捷)’ 때 성 밖의 의병(義兵) 등 지원군과 군사신호로 풍등(風登)을 하늘에 올리고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으며, 한편으로는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 계사년(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10만 왜군과 항진한 7만 여명의 민·관·군이 순국하였다. 후일, 진주사람들은 임진·계사년(任辰·癸巳年) 국난극복에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남강에 유등(流燈)을 띄웠고, 이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잡았다.

2) 축제의 발전과정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발전과정은 대한민국 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영남예술제)’가 배경이다. 1949년 시작된 영남예술제의 부대행사로 ‘유등띄우기’가 1999년까지 이어져 온 것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배경이 된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모태인 개천예술제는 1949년 정부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제1회 영남예술제가 개최되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10.26사태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었다. 1959년부터 영남예술제가 개천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특히,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국가원수가 개제식에 참석하는 예술제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00년과 2001년도에 개천예술제의 특별행사로 ‘진주남강국제등축제’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등(燈)을 소재로 진주대첩 재현, 전통등, 창작등, 유등 띄우기 소망등 달기, 세계등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다.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성화 축제로 지정되면서 예비, 육성, 우수, 최우수, 대표축제, 명예대표축제, 글로벌 육성축제, 2016년에는 ‘대한민국 글로벌축제’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는 ‘세계5대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표 4>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발전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연혁 및 특징

축제명	연도	문화체육관광 부 선정 내역	특징
개천예술제	1949-1999	내역 없음	· 개천예술제 부대행사
진주남강 국제등축제	2000-2001	내역 없음	· 전통등, 세계등, 소망등 달기 등 특화구성
진 주 남 강 유 등 축 제	2002	특성화축제	· 최초 국비지원 · 부교설치, 소망등 5,000개
	2003	예비축제	· 전국적인 축제발전의 전기마련 · 예산규모확대, 소망등 10,000개
	2004	육성축제	· 진주 읍.면.동 상징등 설치 · 남가람 어울마당, 축제볼거리확대
	2005	우수축제	· 소망등규모 확대 13,500개 · 전국 13대축제로 도약
	2006	최우수축제	· 체험행사 확대, 소망등 15,000개 · 전국 5대축제로 발전
	2007	최우수축제	· 제 2부교설치, 소망등 19,100개 · 2년 연속 최우수축제 지정
	2008	최우수축제	· 일본여행전지BBB가선정한 ‘10월에 가장보 고싶축제 선정, 매경이코노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베스트 3대 축제선정
	2009	최우수축제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축제 취소
	2010	최우수축제	·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 제3부교 설치, 소망등 26,000개
	2011	대한민국 대표축제	· 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금상 3개, 동상1개 수상 · 진주성안을 유등설치(조선시대풍속 등)
	2012	대한민국 대표축제	· 주제공연 뮤지컬 ‘유등’
	2013	대한민국 대표축제	· 진주성 둘레길 유등 설치 · 소망등 30,000개 · 캐나다 유등수출, 미국 LA서울공원 수출
	2014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 해외전시관운영 · 아르헨티나 수출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 미국 히달고시 보더페스트 축제 수출 (2015년 ‘한국의해로 지정초청) · 유효화 도입 재생력 강화 방안 확인
	2016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	· 재정자립도 가능성 확인 · 글로벌축제로 도약 · 세계 5대축제로 선정 전제조건 확립

2.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과와 성공요인

1) 문화관광축제의 운영 현황

정부는 1996년부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6). 문화관광축제의 수는 1996년 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 18개, 2000년은 25개, 2001년에는 30개의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그 이후 2003년부터 예비축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문화관광축제의 수가 급증하면서 2009년에는 57개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40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015년 세계축제선정 인지도를 위해 ‘글로벌 축제’를 지정, 2016년도에는 글로벌축제를 포함하여 43개의 축제를 선정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한 집중지원과 유사축제에 대한 통폐합 유도를 위해 2010년도 문화관광축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선정하였다. 이것은 ‘일몰제’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개념은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표축제는 3회까지만 지원하고 최우수 축제 등은 등급별 3회 연속(유망축제는 4회),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등급별 지원기간 한도를 설정 하였으며, 지원이 종료되는 대표축제는 명예대표축제로 간접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표 5> 문화관광축제의 선정 수와 예산지원액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축제수	8	10	18	21	25	30	29	30	37
지원액 (억)	2.5	3.4	3.5	3.6	15.8	18.5	16.5	18.4	21.6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축제수	45	52	52	56	57	44	44	45	42
지원액 (억)	25.3	35	35	71.7	70	72.5	67	67	6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1995~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문화관광축제 고착화를 완화시키고 신규문화관광축제의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문화관광

축제 지원을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일몰제에 적용된 축제들의 경우 국비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축제예산삭감, 관련프로그램축소, 축제기간축소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정체될 상황에 처해 있다.

2)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의 배경

2011년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진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관광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대책으로 축제 재정 자립화를 강조하였다. 진주시는 명실공히 5대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자립화 글로벌화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중국 자공축제, 캐나다 윈터루드축제 등 국외 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 함평나비축제 등 국내 축제 유료화 사례를 조사·탐방하였으며, 2015년 4월 7일 진주시청에서 학계, 기관, 시민단체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유료화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15년 4월 17일 진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진주시청에서 경상남도의회, 진주시의회, 문화예술인, 진주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시민공청회를 통해 축제유료화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객관적이고 적정한 입장료산정을 위해 2015년 6월 30일 입장료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였고, 그 결과물을 산출하여 유료화 도입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강환(2004)은 관광의 관점에서 축제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은 복합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소비하는 분위기이므로 관광이벤트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지만, 반면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고, 또한 양질의 관광이벤트는 입장료부과로 금전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핵심고객 시장을 더욱 쉽게 유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찬영·이훈(2014)은 축제입장료를 받게 되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때와 비교해 외부영향력이 감소하고 축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과 정부의 보조금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축제유료화의 급진적 도입으로 축제무료화에 익숙한 방문객들이 축제입장료 지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훈(2010)은 축제입장료 도입을 통한 축제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는 축제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 재투자로 이어지는 축제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1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3년간 선정되어 정부지원을 받아왔다. 2014년 일몰제 대상축제로 정부지원금 제외(일부지원) 축제로 행사 기간축소 등으로 개최되었다. 2015년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는 유료화 방안을 마련, 부분유료, 전체유료를 시행하게 되었다.

<표 6> 진주남강유등축제 정부지원금 흐름도

지원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졸업)
국비	8억	8억	6억	2억
도비	2억	2억	2억	2억
계	10억	10억	8억	4억

※ 자료: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내부자료

3)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의 성공요인

2015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유료화를 통해 재정자립도 80%달성의 이루었다. 총 지출총액 40억 원 중 32억 원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다.(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2015). 2016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 수익금이 유료입장객 관람료 24억을 비롯해 모두 34억으로 잠정 집계 되면서 재정자립도 8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진주유등축제는 태풍, 주말 우천, 임시휴장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유료입장객 30만 명, 무료 입장객 25만 명 등 55만 명의 입장객으로 34억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잠정 예상 추계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축제입장료 24억 원에 소망등 수입 3억 8000만원을 비롯한 축제장 광고수입하고 체험 행사 기념품 부스임대료 등 총 10억 원을 더한 34억 원으로 지난해 유등축제 수입 32억 원에 늘었다. 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40억 원 정도로 시는 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85%로 계산된다. 따라서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재정자립은 글로벌축제로 도약해 세계 5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017년도에는 재정자립도 100% 달성이 무난할 전망도 나온다(경남도민신문, 2016).

<표 7> 진주유등축제 유료화 수입 내역(2015-2016년도)

년도	유료입장료	부스 및 기타수입	소망등수입	광고수입	합계
2015년	22억 원	3억3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4천만 원	32억 원
2016년	24억 원	10억 원	3억 8천만 원		34억 원

※ 자료: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내부자료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3년 정부의 일몰제 도입으로 2015년부터 제외축제로 선정되면서 축제의 재정자립을 위해 유료화를 시작하였다. 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자체와 추진위원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정자립 100%로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관광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표 8> 2015년 국내 자립화 대표축제 . 행사 유료입장객 현황 (단위: 명,천원)

축제명	기간	유료 입장객	입장료수입	입장료 금액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축제)	10.1~10.11	246,000	2,230,000	10,000
보령머드축제 (글로벌축제)	7.17~7.26	46,000	450,000	10,000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글로벌축제)	9.25~10.4	80,000	220,000	7,000
함평나비축제	5.1~5.10	172,000	840,000	7,000
부산국제영화제	10.1~10.10	160,000	1,000,000	6,000

※ 자료: 석장호(2016), 김학용(2016), 부분수정.

<표 9> 국외 주요축제 자립화 입장료 현황 (단위: 원)

축제명	입장료 책정금액
브라질 리우카니발	86,000~3,000,000원
영국 에딘버러축제	40,000~99,000원
일본 네부타축제	33,000~85,000원
캐나다 퀘베크여름축제	33,000~83,000원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축제	17,000~57,000원
프랑스 니스카니발	28,000~49,000원
중국 자공시 등축제	6,000~18,000원
미국 보더축제	8,000~15,000원

※ 자료: 안정하(2012), 김학용(2016), 부분수정.

정강환(2015)은 축제의 자립화는 국비와 지방비 축소로 인해 축제예산조달의 한계에 따라 입장료부과, 축제유료화, 수익다양화, 축제상품개발,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마련으로 국내 축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강만진(2015)은 통영한산대첩축제 평가회 총평에서 남명산 공원을 빛을 주제로 삼는 테마파크로 꾸미고, 마패나

손목띠 형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통영제영 수책(올타리)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패키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창원시는 2016년부터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유료화는 행사장 외곽 전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식이나 대표작품만 유료화하는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경남 CBS, 2016).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자립화 성공요인은 <표 7>, <표 8>, <표 9>를 종합하면,

첫 번째 유료화 배경에 선행연구와 국내 및 해외축제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입장료 금액 책정부터 축제위원회, 관, 시민 학계, 문화예술인 등의 참여를 통해 자생력 방안을 2년에 걸쳐 세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들 수 있다. 진주성을 이용한 테마등 설치를 이용한 힐링거리 조성은 진주성의 역사와 각각의 진귀한 품물과 한국미를 느낄 수 있는 등 전시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세 번째는 진주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들 수 있다. 읍·면·동 상징등 제작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동기와 진주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는 소망 등의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화 기초적인 발판이 되었다.

다섯 번째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 방문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제공과 무료주차장 제공을 들 수 있다. 전국 축제 현장을 가보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행사장 진입에 따른 불편과 주차장 유료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축제대환 이미지를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사장의 청결문제를 진주시청과 축제위원회의 공동대처로 깨끗한 행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00년 ‘진주남강국제등축제’로 출발하여 2016년 ‘글로벌 축제’로 지정되어, 재정자립을 통해 글로벌축제로 도약 세계 5대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진주시, 축제제전위원회, 시민, 향토기업, 경상남도, 예술인, 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 100%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 배치도



※ 자료: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2016).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통해 자생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먼저 축제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대한민국 축제현황을 조사하고, 정부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일몰제 대상축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의 목적에 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5년 유료화를 통해 80%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기상악화 속에서도 재정자립도 85%를 달성하였다. 2015년 유료화는 2000년부터 ‘유등’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영혼을 기리는데 부터 출발하여 2016년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였다. 2015년 일몰제 대상축제로 선정되면서 유료화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가림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2016년에는 가림막을 대신에 터널조명을 이용해 갈등해소에 힘써왔다. 그리고 축석루 성안에 2015년도는 ‘1592 진주성 등 전시’를 통해 힐링거리를 조성, 부교와 연결한 테마체험을 통해 관광객 확보에 힘써왔다. 2016년에는 ‘빛으로 되살아난 진주성 등 전시’를 통

해 해마다 역사적인 진주성 테마를 구성하여 관광객유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타 지역축제와 연결,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원-원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여수시와 진주시는 축제 행사장 입장 시에 신분확인 후 50% 할인제도를 활용하여 원-원하는 좋은 예이다.

일몰제 도입의 장점은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신규축제의 진입 완화 및 축제등급 고착화를 방지하여 지역축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제도는 지정받은 축제는 영속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개선하여 일몰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운영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몰제 축제 평가기준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몰제의 기준은 연말에 시행하는 문화관광축제 선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몰제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결정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는 문화를 수출하고 대한민국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글로벌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관광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과를 잘 활용하여 문화 상품화에 최선의 노력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중석, “지역축제 주민참여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9, p.36.
- 권오현, 김홍석, “지방문화산업 육성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김낙순, “한국 지역축제의 현황 및 기능수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47.
- 김혜림, “지역대표축제 발굴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창출전략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1991.
- 이희성, “축제예술경영론”, 대왕사, 2015, pp.29-32.
- 류정아 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연구(1)”, 문화체육관광부, 2006, pp.45-47.
- 박성호, “축제 어떻게 팔 것인가”, 문화도시 . 문화복지, 2000.
- 이광진, “한국문화정책론”, 백산출판사, 1995.
- 이상일,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6.

- 이희성, “축제예술경영론”, 대왕사, 2015, p.25.
- 이현식, “한국의 지역 축제 지역 지원 정책 현황”,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03.
- 이훈,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연구”, 2002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2.
- 조현호 외, “관광이벤트의 기획과 실제, 대왕사, 2006, p.128
- 이희성, “축제예술경영론”, 대왕사, 2015, p.25.
- 정강환, “이벤트 관광전략”, 일신사, 1996.
-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함영덕, “지역축제 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홍성진, “화천 산천어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Getz, D, *"Festivals, Special Events &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 Franco Bianchini & Parkinson Michael,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Oxford Roa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 <http://www.yudeung.com>
- <http://www.mcst.go.kr>
- <http://www.jinju.go.kr>